





새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지요?  
바로 "누구와 같은 반이 될까?"입니다.



한 반에는 성격과 생각, 취향이 모두 다른 친구들이 함께 지내요. 여러분은 그 중 어떤 친구와 친해지고 싶나요? 외모가 멋지고 인기가 좋은 친구도 좋지만,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합니다.



인기가 좋은 친구도, 만약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점점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. 반대로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고, 나와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우리는 그 기억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거예요.



함께 있어 편안하고 즐거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 
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.  
그것이 배려와 존중이기 때문이며, 우리는 나를 배려하고  
존중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.



= 최고의 인사가 아니어도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.  
= 활발하지 않다고 해서 친구를 못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.  
= 상대의 말을 소중히 들어 주고, 서로의 관심과 고민, 생각이나  
=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언제 어디에서든, 좋은 친구와  
= 좋은 관계를 맺고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.